

# 발통증도 못말리는 피렐라의 전력질주

21경기서 타율 0.325·8홈런·18타점  
발바닥 통증에도 적극적 플레이 헌신  
허삼영 감독 “자제 시켜도 소용 없어”

삼성 라이온즈는 외국인선수 보유 한도가 기존의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 2014년부터 외국인타자 영입을 잘한 구단으로 손꼽힌다. 2016년(아론 발라리스)과 2020년(타일러 살라디노~다니엘 팔카)에는 처참한 실패를 맛봤지만, 아마이코 나바로(2014~2015년)와 다린 러프(2017~2019년)는 모두가 인정한 타선의 핵이었다.

올해 영입한 외국인타자 호세 피렐라(32)도 팬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27일까지 21경기에 출전해 타율 0.325(83타수 27안타), 8홈런(2위), 18타점, 출루율 0.380의 성적도 눈에 띄지만, 적극적인 플레이로 팀 승리에 기여하려는 노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나치게 적극적이다 보니 부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현재 피렐라의 몸 상태는 100%가 아니다. 발바닥에 통증이 있다. 허삼영 삼성 감독은 “피렐라가 발바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참고 뛰면서 팀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감독이 이 사실을 공개한 27일, 대구 NC 다이노스전에서 홈런포를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했다. 다이내믹한 스윙과 통통 튀는 움직임은 그대로였다.

허 감독도 혹시 모를 부상을 우려하며 ‘폭주’를 자제시킨다. 하지만 본인의 스타일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듯 하다. 허 감독은 “자제를 시켜도 본인이 뛰어버리니 방법이 없다”고 허를 내두르면서도 “팀을 위해서도 시야하는 바가 크다”고 미소를 보였다.

전력으로 뛰는 것은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이다. 피렐라는 일본프로야구(NPB·히로시마 도요 카프) 무대에서 뛴 때도

어떻게든 팀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모습으로 선수단과 팬들에게 사랑받았다. 일본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츠호치는 “(피렐라는) 타격 부진에 빠졌을 때 팀의 핵심 타자 스즈키 세이야에게 직접 조언을 구했고, 펜스 충돌도 불사하는 근성 넘치는 플레이로 팬들을 즐겁게 했다”고 소개하며 “NPB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한국에서도 활기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금까지 피렐라가 삼성에서 보여준 모습과 일맥상통한다.

삼성의 대표적인 외국인타자 성공사례로 꼽히는 나바로와 러프는 타선에 큰 힘을 보탠 공통점이 있지만, 스타일은 극과 극이었다. 나바로는 불성실한 플레이로 도마에 올랐고, 러프는 진중하면서도 성실했다. 팬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갔다. 당연히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쪽은 러프였다. 피렐라는 쾌활하면서도 성실하다. 구단 내·외부에서 모두 호평을 받고 있는 이유다. 성적까지 뒷받침되니 그야말로 복덩이가 따로 없다. 사령탑도 못 말리는 그의 적극성이 삼성을 바꾸고 있다.

대구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 삼성 외국인 타자 호세 피렐라가 주목받고 있다. 결출한 성적뿐 아니라 부상이 우려될 정도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플레이에 팬들이 환호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 KIA 나지완, 내복사근 통증으로 부상자명단



나지완

KIA 타이거즈 주장 나지완은 28일 광주 한화 이글스전에 앞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왼쪽 내복사근 통증으로 인해 10일짜리 부상자명단에 올랐다. KIA 맏윌리엄스 감독은 “이전 경기에서 주루플레이 도중 옆구리에 통증을 느꼈다. 경기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지만 미세하게 통증이 남아 있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잡고 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나지완은 올해 16경기에 출전해 타율 0.184, 3타점, 2득점을 기록했다.

## NC, 선발 김영규 1군 말소하고 소이현 등록



김영규

NC 다이노스는 28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전에 앞서 좌완 선발투수 김영규(21)를 2군으로 내려보냈다. NC 이동욱 감독은 “김영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대체 선발투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규는 올 시즌 4경기에 선발 등판해 1승2패, 평균자책점(ERA) 9.53의 성적을 거뒀다. 27일 대구 삼성전에선 5.1이닝 동안 13안타(3홈런) 2볼넷 1삼진 9실점으로 무너졌다. NC는 김영규가 빠진 자리에 우완투수 소이현을 등록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 ‘30년 우정’ 류지현-허문회 감독 “밖에서만 친구”

대학시절 대표팀·LG서 한솥밥  
허 감독 “필드선 냉정한 사이죠”

30년 동안 이어진 우정. 각별한 인연은 뒤로 한 채 그라운드에서 각자의 지략을 뽐냈다. 승부의 세계에서 승자와 패자는 갈렸지만 이는 감독의宿命이다. 류지현 LG 트윈스 감독(50)과 허문회 롯데 자이언츠 감독(49)에게 27일은 특별한 하루였다.

LG는 잠실 롯데전에서 4-0으로 승리했다. 올 시즌 첫 ‘엘리트시크’ 맞대결에서 LG가 웃은 것. 이 경기는 두 사령탑의 인연으로도 관심을 끌었다. 생일이 빠른 허 감독은 류 감독과 90학번 동기다. 경성대 출신 허 감독과 한양대 출신 류 감독은 대학시절 태극마크를 함께 달며 우정을 쌓았다. 허 감독은 1994년 KBO 신인드래프트 2차 1라운드 해태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었는데,

직후 트레이드로 LG행이 결정됐다. 그해 1차지명자였던 류 감독과 한솥밥을 먹었다. 류 감독의 결혼식 날엔 허 감독이 웨딩카를 운전했다.

두 사령탑은 27일 경기 전에도 잠시 만나 망중환을 즐겼다. 허 감독은 28일 LG전에 앞서 “평소에도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 솔직히 버스 타고 잠실로 올 때만 해도 ‘우리가 이기겠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기가 부족했다”며 웃었다. 이어 “야구장 밖에선 친구지만 필드에 나오면 냉정한 사이다. 그래도 우정은 깨질 수 없는 것 같다”면서도 “맞붙을 땐 롯데가 이겼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류 감독은 올해 스프링캠프 연습경기를 위해 부산을 찾았을 때 “대학 시절부터 친했던 친구들이 감독이 됐다. 언제까지 함께 감독직을 맡을지 모르겠지만 훗날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고 진한 우정을 드러낸 바 있다. **잠실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오직 사람을 생각해온 AI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도움이 되어온 Bigdata  
늘 그랬듯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Cloud를 기반으로  
DIGICO KT가 당신의 미래로, 당신의 삶으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DIGICO KT**

DIGICO KT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서 고객의 삶의 변화와 다른 산업의 혁신 리딩을 함께하겠습니다